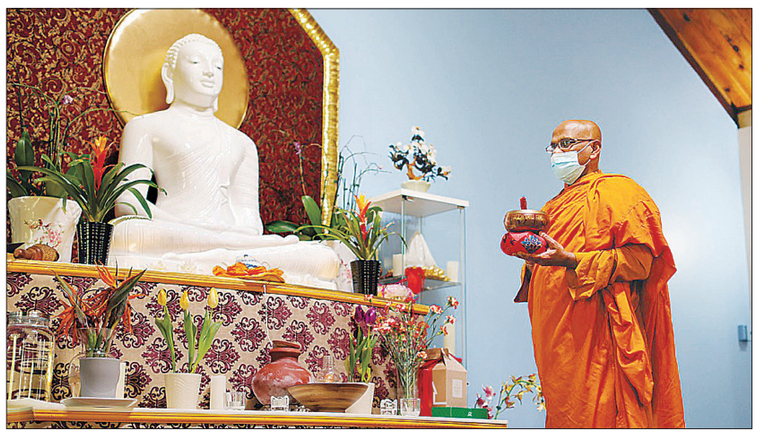
십자가 대신 불상…오래된 美교회 사찰 변신

스리랑카 출신 수타다라 스님
캘리포아니아주 옛 교회 구입
지역주민 대상 불교·명상 교육
"모두에게 열린 공간 만들 것"

박영빈 객원기자


교회에서 사찰로 변신한 캐머릴로 불교센터에 봉안된 불상과 수타다라 스님. **사진출처=디 아콘**

미국 캘리포니아의 오래된 교회가 사찰로 변신했다. 십자가 대신 불상을 모시고 지역주민들에게 불교와 명상을 가르치는 도량이 된 이 현장을 3월 4일 미국의 '디 아콘'이 특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캐머릴로시, 배리 스트리트의 주택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건물. 뾰족한 첨탑과 십자가가 교회임을 보여 주지만 이곳은 스리랑카 출신의 수타다라 스님이 이끄는 '캐머릴로 불교센터'다. 예배당 내부에 십자가가 걸려 있던 자리엔 1m 높이의 불단이 설치됐고 테라와다 불교 스타일의 불상이 봉안됐다. 캐머릴로 불교센터 측은 "보이는 것처럼 본래 이곳은 개신교 교회였다. 그러나 교회가 이전하면서 건물만 남아 있었던 것을 구입해 새롭게 불교사원으로 문을 열게 됐다"고 전했다.

이곳을 이끄는 스리랑카 출신 수타다라 스님은 1980년대에 언어학을 공부하기위해 미국 하와이로 유학을 오면서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부터는 워싱턴 DC 불교사원들에서 영어로 명상과 불교를 가르치면서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스리랑카에서 오랫동안 수행한 스님이 직접 영어로 명상과 불교를 가르친다는 점이 아시아권 이주민이 아닌 서구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스리랑카 이주민 공동체를 비롯해 많은 아시아 이주민 불교신자들도 스님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스님과 신도들은 더 넓고 안정적인 공간을 찾기로 결정하면서 이곳 캐머릴로 불교센터가 문을 열게 됐다.

캐머릴로 불교센터 측은 "센터 개원을 위해 많은 분들의 보시금과 여러 재원을 마련해 지난해 7월, 이 오래된 교회와 사목관을 87만 달러(한화 약 10억 7천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면서 "오랫동안 방치돼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고, 실제로 개원한 것은 지난 1월 1일"이라고 센터가 개원하게 된 내력을 전했다.

2007년부터 수타다라 스님의 지도하에 명상을 수행해온 가톨릭 신자 펫 탈만은 "캐머릴로에 새로운 공간이 생겨서 정말 행복하다"며 "이곳은 수타다라 스님과 함께 수행하기에 완벽한 장소다"라고 센터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탈만은 "캐머릴로의 지역 공동체는 이곳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막 문을 연 곳이라 아직 유명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탈만은 수타다라 스님을 돕기 위해 직접 명상반과 요가반을 만들어 센터에서 지도하고 있다.

수타다라 스님은 가톨릭 신자가 명상을 가르친다는 주변의 의문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종교를 초월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며 모든 영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관대하고, 타인을 돕고, 타인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불자"라며 포용하는 자세를 보였다.

현재 캐머릴로 불교센터는 센터의 목표 중 하나로 '학문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불교를 가르치는 새로운 모델개발'과 '종교공동체간의 협력을 통한 전세계에 자애와 연민의 전파'를 들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센터에서는 수타다라 스님의 설법과 명상 강의 외에도 태극권과 요가 등 다양한 강의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불교 가르침과 정신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中, 티베트 문화 탄압 행동 강령 배포

'일국·일언어·일문화' 정책
불단에 시진핑 사진 봉안 강요

중국이 티베트 문화와 정체성 탄압을 지속하는 가운데, 티베트 문화의 핵심요소인 불교에 대하여 더욱 강도 높은 제제 도입이 예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의 다국적 영어 뉴스 채널 '월드 이즈 원 뉴스'는 3월 6일 중국정부의 티베트 문화와 불교 탄압 강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최근 티베트 자치구를 비롯해 티베트 불교가 강세인 여러 자치현에 있는 중국 공산당원들에게 6개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행동 강령을 배포했다. 이 강령에 따르면 당원들은 공사 구분 없이 모든 생활에서 어떠한 종교를 가질 수 없고,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유형을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상세히 기술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티베트 불교 문화권의 당원들은 염주나 호신부, 또는 종교적인 이미지가 포함된 액세서리 착용이 금지된다. 또 온라인상에서 종교적인 자료를 전달하거나 공감을 표시하는 등의 일도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전통 풍습의 하나로 행해지는 탑돌이나 명절 시기의 사찰참배도 모두 금지됐다.

이번 강령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당원의 일가친척에까지 이러한 강령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 강령을 따르는 공산당원들은 전원 가택 내 불단 조성과 종교의례를 금지하며, 중앙당의 반종교적 입장을 전파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하여 현지 소식통은 "최근 티베트인 가정의 불단이나 사찰의 불단에 시진핑을 비롯해 역대 중국 지도자들의 사진이나 대형 포스터를 봉안할 것을 정부가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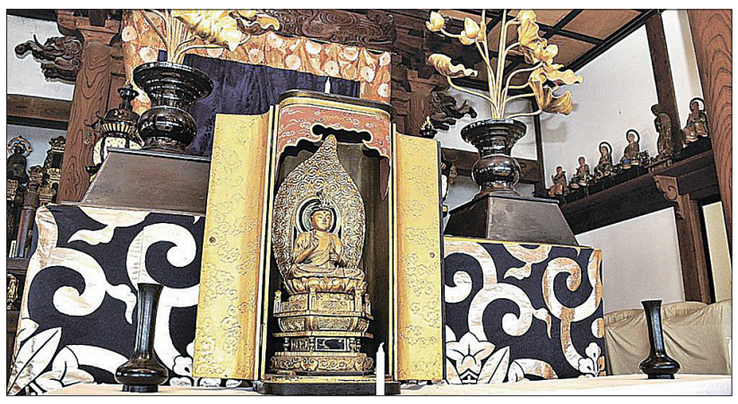
행동 강령은 3월 1일 발효된 '인터넷 종교정보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치'라는 새 규정과 함께 시행됐다. 이 조치는 허가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이 중국과 티베트에서 종교 콘텐츠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외 발 유포가 원천 금지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도 다람살라에 소재한 티베트 망명정부의 수상 뺀빠 체링은 "중국이 티베트에서 '일국, 일언어, 일문화(一國, 一言語, 一文化)'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티베트인들이 한 민족이자 문화로 서서히 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달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온라인 토론에서 티베트, 신장, 홍콩 등지에서 일어나는 중국정부의 인권, 문화탄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150년 만의 귀향…환지본처한 日관음보살상

폐불훼석으로 흩어진 국보급 불상
감실 봉안됐다 본래 사찰로 이운


150년 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쇼린지의 관세음보살좌상. **사진출처=마츠모토 시민 타임즈**

일본 근대화가 시작된 19세기, 천황의 신성성 강조를 위해 일어났던 폐불훼석(廢佛毁釋) 운동으로 일본 각지 사찰이 폐쇄되고 불상들이 파괴된 일이 일어났다. 당시 폐사된 사찰에서 유출된 국보급 불상들은 대부분 해외 박물관으로 흘어지거나 인근 사찰로 이운됐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이운됐던 불상이 150년 만에 본래의 사찰로 돌아가게 돼 화제다. '야후 재팬 뉴스' '마츠모토 시민 타임즈' 등은 2월 27일 기적적으로 환지본처하는 관세음보살상에 대해 보도했다.

이번에 귀환하는 관세음보살상은 높이 50cm 갸랑의 목조좌상으로 감실에 봉안되어 보관되고 있다. 관세음보살상을 모셔왔던 일본 나가노(長野)현 마츠모토(松本)시 의만넨지(萬年寺) 측은 "이 불상은 같은 시내에 소재한 쇼린지(正麟寺)에서 150여 년 전 이운돼 왔다"며 역사를 설명했다. 만넨지 측은 "당시 폐불훼석이 격렬하게 일어난 곳은 막부가 아닌 천황을 지지하는 지역들이었다. 현재는 같은 시로 묶여 있지만, 당시 쇼린지와 만넨지는 서로 다른 영주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쇼린지가 폐사되면서 관음상이 당시 막부의 직할령에 속했던 만넨지로 옮겨와 화를 면했다"고 상세한 내력을 밝혔다.

관세음보살상은 당시 마츠모토 지역 33관음도량 중 24번째 도량 본존불로 모셔져 주민들이 소중히 모셔오던 불상이다. 덕분에 매각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폐불훼석에서 안전한 만넨지로 이운된 것이다. 만넨지 측은 "이운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본당 한쪽에 공간을 마련해 예경해왔다"고 전했다.

쇼린지의 주지 미야자와 쥰키 스님은 "잃어버린 불상이 본래의 도량으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희유한 일이며 기적적인 경사"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불상 귀환은 폐사됐던 쇼린지가 1883년 다시 부흥한 이래 역대 주지스님들의 오랜 소원이었다. 그러나 여러 절차와 금전적 문제 등 다양한 방해요소로 번번이 실패, 만넨지와 함께 방법을 모색해왔다.

만넨지 주지 마츠모토 류세이 스님은 "재작년 입적하신 쇼린지의 전대 주지 미야자와 쥰코 스님이 마지막으로 만넨지를 방문하셨을 때 슬픈 눈으로 관음상을 어루만지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오랫동안 관세음보살님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이번 귀환의 성사는 전대 스님들의 바람이 이뤄진 것 같다는 감상을 전했다.

불상은 3월 1일 쇼린지 본당으로 이운되어 고불식과 봉안식을 봉행했다.

150년 만에 관음상을 맞이한 이날은 마침 쇼린지의 전대 주지인 쥰코스님의 기일이기도 해 대중들의 기쁨이 더했다.

류세이 스님은 "만넨지 주지로 부임할 때의 진산식을 입적하신 쥰코 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봉행했다. 이러한 인연이 겹친 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쥰키 스님은 불상 귀환에 힘쓴 만넨지와 여러 대중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中, 이어지는 티베트 탄압 훼불

지난해 이어 세 번째 정책
닥고 지역 불상·사원 파괴


닥고 지역의 차낭 사원. **사진출처=티벳워치**

중국이 티베트에 대한 문화 말살 정책을 지속하며 불상과 사원을 파괴 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티베트와 망명 티베트 전문 언론 '파율'과 인도의 영어 일간지 '더 스테이츠맨' 등 여러 외신들은 3월 3일 중국의 훼불행태에 대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닥고(Drag-go)지역의 치낭 사원 야외에 설치됐던 불상을 철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닥고 지역은 현재 쓰촨성으로 편입됐으나 중국의 침공 이전까지는 티베트의 행정구역이었다.

파괴된 불상은 8세기경 티베트에 불교를 전한 고승 파드마삼바바의 불상으로 3층 건물 높이의 대불이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또 "차낭사원 역시 대중스님 500명이 머무는 사찰이었으나, 중국정부의 제한으로 인해 50여 명 가량의 스님들만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3일 촬영된 차낭 수도원의 위성사진에는 3층 높이의 불상과 부지가 보이지만, 지난 2월 25일 촬영된 사진에는 파괴된 불상과 텅 빈 부지만이 보인다. 티베트 망명 소식통 '티벳워치'는 "중국 당국이 스님들에게 불상을 자체적으로 철거할 것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닥고 지역에서의 훼불사건은 지난해 12월 다른 대불과 사원들이 철거됐다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세 번째이며, 이를 SNS와 온라인 등으로 공유한 혐의로 이미 티베트 현지인 여러 명이 억류된 바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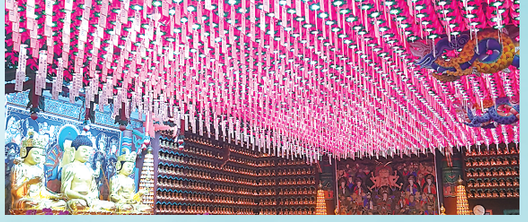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